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5월 2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9/11 관련 질병을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보장하다

세계무역센터부지에서 구조, 복원 및 청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진료 및 상실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17년도 뉴욕주 예산에 2001년 9월 11일 이후 1년 동안 세계무역센터부지에서 병에 걸린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실 임금과 진료 및 치료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900만 달러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비용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이를 위해 연방에서 뉴욕주에 할당한 자금이 고갈되더라도 수당과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용감한 분들은 당시 가장 어려운 때에 사심 없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고 뉴욕주민이 무엇인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며, 우리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세계무역센터에서 나온 유해 먼지와 쓰레기와 관련된 질병을 얻었습니다. 유급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2002년 이러한 수당을 위해 하원이 2,500만 달러를 책정할 때까지 이러한 안전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5년에 5,000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취급하고 뉴욕주 산재보험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무역센터 자원봉사자 기금은 지난 달 이 연방 지원금을 고갈하였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위원회가 보험에 들지 않은 고용자 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복종 과태료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나온 벌금으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메커니즘은 세계무역센터 자원봉사자 기금 수혜자들의 수당 지급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 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무역센터 자원봉사자 기금은 현재까지 약 1,900명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산재보험위원회에 등록된 분들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나 상실 임금이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9월 12일까지 세계무역센터 부지에서 구조, 복구 또는 청소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Ground Zero, Fresh Kills Landfill, 마지선, 부두 및 영안실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국립 직업안전및건강(NIOSH)이 치료 및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하는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9/11 응급구조자들을 보살필 것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Zadroga 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75년 동안 연방정부가 최근까지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응급구조자들은 무료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외에도 이들 클리닉은 응급구조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및 뉴저지의 많은 우수 클리닉 센터와 전미국 의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dc.gov/wtc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